

(설 화)

제 목 : 섬논 말무덤 이야기  
제 보 자 : 이 성 근 ( 남. 당 82 세 )  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  
조사일시 : 1997. 11. 28. 이성근 가

내 용

그 이조때 그 능안에서 인상오다가 말이 고만 쓰러져 죽어서 거기다 이력케 큰 산수보다 더크게 해놔서요, 그랬다 그게 흐지부지 다 읍서지구 그냥 흙을 파서 메꾸구 밭들 해먹구 이래다가 그냥 읍서졌서요, 메백년 갖서요, 그게 섬논이예요 섬논 (제보자: 하--하) 그 섬이 있다구 그래서 섬논 이라구 그래죠, 지끔 주유소 자리 고 밋친대요, 바루 조기 들어오다 흥어물 그래 능에 드러오다가 그 말이 쓰러져서 죽었대요, 그게 아마 나라에 아마 대신이 타구 들어오다 말이 괜히 제철루 쓰러져서 죽어서 거기다 말무덤이라구 해놔는데 무척 오래 갔서요, 우리 어려서 무척 크던걸 읍서진지가 인제 한 십여년 박게 안됐서요, 인제 사람덜이 즈 땅이 그게 있스니깐 그 누가 임자두 읍구 나라에설 그걸 그전엔 돈는데 그래두 그 말무덤을요, 담은 일년에 그 땅세금을 물어주구 그걸 말무덤이라구 짝어서 해주믄 돈을 주구그랬는데 그건 인제 나라가 읍서지구 망거지구 그걸 누가 참년이나 해요, 그러니깐 그래구 제 땅 그게 있다 해가주군 그걸 죄 파서 읍세 버렸서요 그건 알어요 ----